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허성호* · 정태연**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2003년-2008년)에서 얻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6년 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전체 표집인원 3,449명 중에서 6년 동안 빠짐없이 자료를 제공한 1,395명(남: 589, 여: 806)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집단의 발달적 단계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집단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손돕기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봉사활동에서 발달단계별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자원봉사활동의 유무집단에 따른 차이는 발달단계별로 조금씩 달랐다. 중학생 시기의 경우 직업성숙도나 진로성숙도와 같은 변인에서는 자원봉사의 유무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 및 정서적인 면에 해당하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 그리고 자아관과 관련된 자기신뢰는 자원봉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자원봉사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원봉사가 직로성숙도나 직업성숙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자아관과 관련되는 모든 변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행동의 감소와 삶의 만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의 경우,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직업성숙도와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에서 관계성과 자아관이 일상생활을 거쳐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발달적 시기 및 자원봉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종단연구,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발달, 관계성, 자아관, 진로의식

*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mail: tjung@cau.ac.kr

I. 서론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된 사회 환경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물질중심화는 황금만능, 배타의식, 불신풜조 등을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이나 학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이 자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들에 대한 과잉보호가 늘어나고 있으며, 입시에 대한 과다열정으로 부모 자식 간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이나 사회성 개발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조경진, 김은정, 2009; 박미정, 1999).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타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실 밖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여 다각적이고 사회복지의 체험적 실천이 필요하다(문영희, 2003). 이에 일찍이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사회의 교육장화, 실천중심의 교육, 인성교육의 강화,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도화하였다(박태영, 김숙경, 오주, 2008; 김영호 2005).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 이러한 영향은 발달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 담고 있는 기능 역시 발달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달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인 현상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효과성의 유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맨서(G. Manser)와 캐스(R. H. Cass)는 『Voluntarism at The Crossroads』에서 “볼런티리즘이란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자원복지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창조하고, 실험

하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익(common good)의 어떤 요소를 증진 혹은 촉진 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사적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그 기관이다.”라고 정의한다(김현숙, 2000).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volunteer)인데,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동기가 주어지고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정의한다(김영호, 2005).

이러한 봉사활동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양창삼, 1988), 첫째 자아실현성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봉사경험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자발성으로, 자원봉사는 자신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권력이나 외부의 세력, 그리고 체면 등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이타성이다. 사회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넷째는 사회성으로, 사회봉사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는 공동체성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 바른 공동체사회,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아관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적인 측면의 자아개념이나 진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의 대인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체험과정 속에서 체득하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실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개인 성취 및 만족감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동배, 2009).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기의 자아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자기(self)를 찾아 가는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내적 특성을 보다 견고하게 한다면,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과 같은 개념들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의의 있고,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

도,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smith, 1967).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 등의 특성을 보였다(이경숙, 2003).

한편, Coi와 Miller-Johnson(2001)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중재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김윤나, 박옥식(2009)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고 부적응행동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영철, 2005), 학업성적 또한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윤나, 박옥식, 2009; Rosenberg, 1965; Rosenberg et al., 1995).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 자아 관련 특성의 발달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복희(2009)의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기성숙에 기여하였으며, Smith(1966)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처음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진로결정인데,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진로성숙은 발달적 측면에서 다음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한 정도로, 자기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태, 1996). 일반적으로 직업성숙 또는 진로성숙을 진로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복희, 2009; Metz, Mclellan, Youniss, 2003). 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은 앞서 언급한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Super(1951)의 연구에서 진로발달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진로성숙과 자아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과 다양한 직업적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지각하며 더 뚜렷한 직업적 자아개념(Vocational Self Concept)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적 선호와 능력, 생활 장면 및 자아개념은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데, 본질적으로 진로발달과정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개인적 요인은 사회적 상황과의 타협을 필요로 하며, 상담, 면접 또는 학급 및 클럽 활동, 여가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진로가 구체화된다(김신줄, 1994; O'Dea, Abraham, 2000).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결정의지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박은미, 이시연, 2009).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대인관계 능력의 개발에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나 일탈적 행동을 감소하거나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학생들은 타인과 더 잘 협력하고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문성호, 문호영, 2009; Gomez, Gundersoon, 2003). 아울러,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진로,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쉽게 우울할 수도 있으며, 낙담을 잘하는 등의 기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각종 여가활동이다(McLean, 1979; Kimball, Freysinger, 2003; Schneider, Iwasaki, 2003). 특히 여가활동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의 만족한 체험을 하게 되므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이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해조, 1987; Klitzing, 2003).

이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지향적인 특성을 함양할 수 있다. 가령, Riecken(1952)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이 빈민지역에서 근로봉사활동에 참여한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입적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편견이 줄었고, 보다 민주적이고 봉사지향적으로 되었다. 요약하면, 사회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Cohn, 2008),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탈행동, 타인애착, 정서조절,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문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발달적 시기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발달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자아관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요인들의 발달은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중요한 과업의 수행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으로 거듭나면서 똑같은 자원봉사활동도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놓여 있는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에서 제공하는 종단자료 즉, 2003년 1차 패널부터 2008년 6차 패널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각 발달 시기별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구체적인 활동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각 발달 시기별로 자원봉사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파악할 것인데,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발달시기상으로 발현되는 종단연구 자료의 특성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본 연구 과정에서 측정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양상의 변인들이 공통성을 내포하면서 구조적인 도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탐색적인 모형의 도출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고/대 학생 별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높은 효과를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구분하고, 도출된 유용한 변인들을 근거로 한 구조방정식을 검증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체 표집인원 3,449명 중에서 6년 동안 설문지 반응에 누락되지 않은 1,395명(남: 589명, 여: 8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참가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3-5차년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년도별 응답인원 중에서 한 번도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태도변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의해 편향되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자원봉사참여 경험, 진로에 관여되는 요소, 자아관에 관여되는 요소, 관계 및 정서에 관여되는 요소, 일상생활에 관한 요소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고 모든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참여 경험은 자원봉사프로그램참여 횟수에 응답하는 단문항과 7개로 구성된 각각의 봉사프로그램명의 참여 여부에 반응하는 각각의 단문항 총7개(정서함양활동, 일손돕기, 등등)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진로에 관여되는 요소로는 직업성숙도 7문항(“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과 진로성숙도 7문항(“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역척도로 되어 있어 모두 재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 = .64, .77$ 이었다. 두 번째로, 자아관에 관여되는 요소로는 자아존중감 6문항(“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신뢰 3문항(“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자아낙인 2문항(“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문항 중 역척도로 된 3문항은 재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 = .76, .82, .78$ 이었다. 세 번째로, 관계 및 정서에 관여되는 요소는 부모애착 6문항(“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친구애착 3문항(“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정서조절 3문항(“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으로 구성하였으며, 친구애착 한 문항만 역척도로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 = .86, .32,$

.6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관여되는 요소로 일탈과 삶만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탈은 총 14가지 행동(대학생집단은 12가지 행동: 무단결석, 가출경험 등등)의 경험유무를 누적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삶만족(“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은 단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양상을 발달 시기별로 비교해 보았고, 각 시기별 자원봉사활동의 빈도 및 상대적인 우세양상을 탐색해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유무가 준실험적인 절차라는 점을 적용하여 사전/사후 동일표본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변인들 간의 상호밀접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4가지 구성변인에 기초한 탐색적 모형을 제시한 후, 동일표본 차이검증의 1차적 추출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인 분석에는 검증된 변인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발달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자료수집의 단위는 1년이었지만,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연도를 통합하였다.

V. 결 과

우선,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 빈도에 따라 발달 수준을 결정하였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경험은 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이검증 결과(〈표 1〉 참조), 중학생의 1차년도, 2차년도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을 측정된 단문항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3, 4, 5차년도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도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빈도수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평균값과 3, 4, 5차년도 평균값을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의 지표로 삼았고, 대학생은 그대로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 빈도에서 측정시기 간 차이검증

측정시기	응답인원	최소치	최대치	Mean(SD)	F값
1차년도	489	1.00	20.00	2.84(2.80)	.05(n.s.)
2차년도	408	1.00	30.00	3.00(3.27)	
3차년도	376	1.00	60.00	3.40(5.36)	.05(n.s.)
4차년도	286	1.00	52.00	4.08(6.29)	
5차년도	195	1.00	50.00	3.88(5.39)	
6차년도	175	1.00	94.00	5.52(10.05)	

다음으로, 참가자들을 자원봉사를 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발달시기별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른 참가자 분포

집단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봉사활동	성별	n(%)	전체n(%)	n(%)	전체n(%)	n(%)	전체n(%)
무	남성	82(45.1)	182(13.0)	188(46.3)	406(29.1)	500(45.7)	1,093(78.4)
	여성	100(54.9)		218(53.7)		593(54.3)	
유	남성	507(41.8)	1213(87.0)	401(40.5)	989(70.9)	89(29.5)	302(21.6)
	여성	706(58.2)		588(59.5)		213(70.5)	

자원봉사활동의 유무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7가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시행한 경우이며, 전체적인 표집분포를 보면 대체로 중학생일 때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개인이 활동한 횟수는 대학생이 제일 많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서였다. 이는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의 편차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짐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학생이었을 때는 한 해 동안 최대 30회 정도를 실시하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60회 정도, 대학생은 94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봉사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그 참여 여부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인성보다 자

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그 초점을 맞추었다.

1. 발달시기별 자원봉사활동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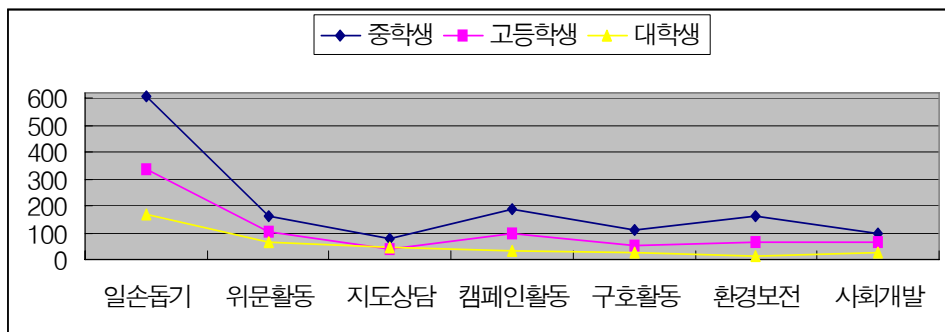
각 발달시기별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7가지로 구분하였고, 개인차 중심보다 봉사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발달시기별 참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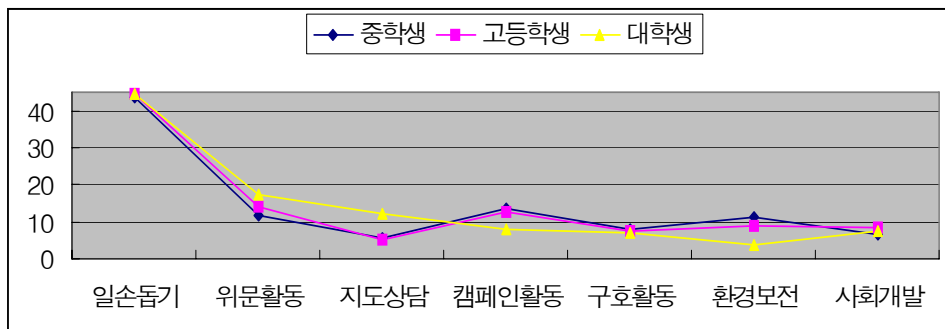
봉사프로그램	발 달 단 계		
	중학생n(%)	고등학생n(%)	대학생n(%)
일손돕기	608(43.40)	332.67(44.37)	171(44.53)
위문활동	162(11.56)	103.67(13.83)	67(17.45)
지도상담	79(5.64)	37(4.94)	46(11.98)
캠페인활동	190(13.56)	93.67(12.49)	30(7.81)
구호활동	108.5(7.74)	54.67(7.29)	27(7.03)
환경보전	158.5(11.31)	65.33(8.71)	14(3.65)
사회개발	95(6.78)	62.67(8.36)	29(7.55)

전체적으로 중학생 때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이 되면서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의 빈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면에서는 “일손돕기”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6가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백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추이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손돕기”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위문활동”이나 “지도상담”은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캠페인활동”이나 “환경보전활동”과 같은 비교적 전문스킬을 덜 요구하는 활동은 중학생 때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때는 시간적으로나 업무훈련 차원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개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발달단계별로 모두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고, 비율상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발달시기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단위는 빈도)



[그림 2] 발달단계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단위는 상대적 %)

2. 발달시기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검증

앞서 살펴본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추이에서 빈도 상으로 본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프로그램들은 높은 지적수준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들이었기에 집단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 활동으로

의해 부여받은 의미까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을 각 단계별로 봉사활동의 유무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봉사활동을 한 집단의 개선 정도가 크다는 것은 그 또래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발달시기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검증

	봉사 활동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평균(표준편차)	t-값	평균(표준편차)	t-값
직업성숙도	무	3.70(0.51)	.60	3.80(0.53)	-2.02*	3.85(0.65)	-2.54**
	유	3.67(0.53)		3.86(0.51)		3.96(0.64)	
진로성숙도	무	3.76(0.54)	1.01	3.71(0.56)	-3.39**	3.76(0.67)	-2.52*
	유	3.71(0.53)		3.82(0.53)		3.86(0.61)	
자존감	무	3.22(0.49)	-1.45	3.34(0.48)	-3.35**	3.57(0.58)	-2.39*
	유	3.30(0.54)		3.43(0.49)		3.66(0.54)	
자기신뢰	무	3.45(0.60)	-2.76**	3.57(0.53)	-4.05**	3.78(0.62)	.12
	유	3.58(0.60)		3.69(0.53)		3.78(0.64)	
자아낙인	무	1.83(0.65)	1.29	1.86(0.56)	4.81**	1.63(0.63)	2.84**
	유	1.76(0.60)		1.71(0.52)		1.53(0.54)	
부모애착	무	3.33(0.67)	-2.79**	3.45(0.62)	-3.61**	3.54(0.72)	-2.15*
	유	3.47(0.65)		3.58(0.63)		3.65(0.74)	
친구애착	무	3.60(0.49)	-2.21*	3.65(0.46)	-1.89	3.65(0.63)	-1.46
	유	3.68(0.49)		3.71(0.46)		3.71(0.59)	
정서조절	무	3.39(0.59)	-1.27	3.30(0.56)	-3.13**	3.47(0.70)	-1.45
	유	3.44(0.60)		3.41(0.54)		3.54(0.69)	
일탈행동	무	0.83(1.41)	.31	0.75(0.87)	1.99*	1.18(0.80)	1.79
	유	0.79(1.14)		0.66(0.78)		1.10(0.58)	
삶만족	무	3.47(0.68)	.82	3.44(0.61)	-2.60**	3.57(0.73)	-3.31**
	유	3.57(0.67)		3.54(0.58)		3.72(0.68)	

* p < .05 ** p < .01

실제로 중학생의 경우 직업성숙도나 진로성숙도와 같은 변인은 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다. 단지 관계 및 정서적인 면에 해당하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그리고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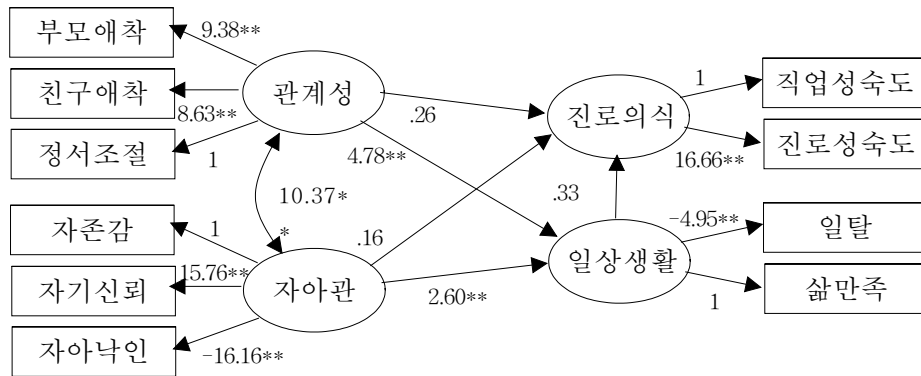
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자기신뢰의 변인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자원봉사활동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때부터 직로성 속도나 직업성속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특히 자아관과 관여되는 모든 변인이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행동의 감소와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성속도와 진로성속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4〉 참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라 심리적 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심리적 변인을 모형에 적합한 상위개념으로 다시 구성하여 모형검증을 시도하였다. 즉, 부모애착, 친구애착, 정서조절은 관계성변인이라고 구성하였고, 자존감, 자기신뢰, 자아낙인은 자아관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성속도, 진로성속도는 진로의식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일탈행동과, 삶만족은 일상생활변인으로 구성하였다.

3. 자원봉사자들의 심리변화 모형 탐색

발달시기별로 개선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주는 선후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 대인관계 및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때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진로관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토대로 탐색적으로 모형화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단계에서 각기 다른 추이가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각 심리적 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운데 각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대상들만 선별하여 그 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모형에서는 관계성 변인과 자아관 변인이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의식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연구모형 1: 중학생

아울러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chi^2 = 375.05, p < .01$), RMSEA와 TLI에 의한 적합도도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적합도는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한 결과, 지수들도 모두 기준치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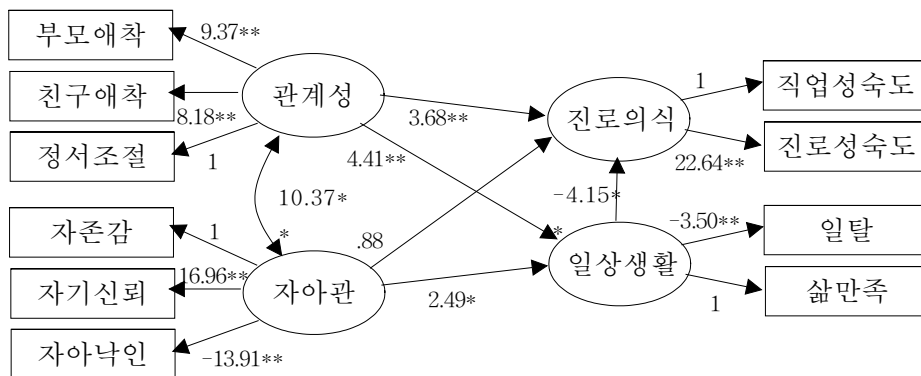
<표 5> 중학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361.62**	29	.95	.90	.90	.85	.90	.10
수정모형	95.87**	24	.99	.97	.97	.96	.98	.05

** p < .01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모형에서는 관계변인이 일상생활과 진로의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관은 일상생활을 매개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이 진로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그림 4 참조). 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생들에게 입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chi^2 = 339.06, p < .01$), GFI에 의한 적합도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적합도는 모두 기준치에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한 결과, 지수들도 모두 기준치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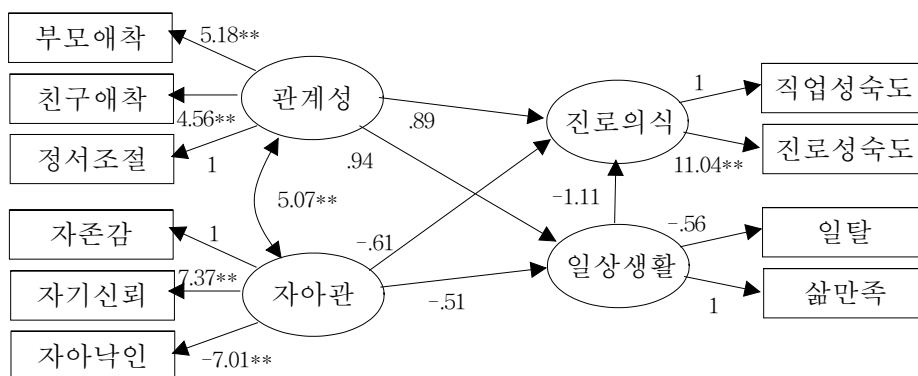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2: 고등학생

<표 6> 고등학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339.06**	29	.94	.88	.89	.84	.89	.10
수정모형	89.23**	24	.98	.96	.97	.96	.98	.05

** p < .01



[그림 5] 연구모형 3: 대학생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모형에서는 모든 변인들 간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이는 고교시절을 거쳐 대학에 들어오면서 자아성장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상대적인 독립성으로 인한 대학생 중에서도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은 아울러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chi^2 = 66.89, p < .01$), RMSEA를 제외한 모든 값의 적합도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한 결과, 지수들도 모두 기준치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7〉 참조).

<표 7> 대학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66.89**	29	.96	.92	.91	.92	.95	.07
수정모형	44.75*	26	.97	.94	.94	.96	.97	.05

* p < .05 ** p < .01

VI.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각 발달단계에 따라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은 경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위문활동”, “지도상담”, “캠페인활동”, “구호활동”, “환경보전”, “사회개발”의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집단간 빈도의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비율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 수준에 적합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된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결과이며, 실제 청소년들은 대학생 때까지 거의 똑같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학생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청소년들이 어떤 발달상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 개선정도를 검토하였고, 실제로 각 발달단계별로 개선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부모나 친구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성과 자아정체성과 같은 자아관이 자원봉사활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이차성징 이후 진로탐색의 과업보다 더 중요한 자아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관과 관계성 변인을 더 긍정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아울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때까지는 관계성보다는 진로성숙에 관한 변인이 자원봉사활동과 더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아관에서 서서히 진로 혹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처럼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진로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달 과정에 있어서 변인들 간의 선후맥락을 가정하였고, 이에 각 집단별로 연구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우선 중학생에게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관계성과 자아관이 일상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진로의식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진로의식을 개선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아관을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변인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제는 자아관이 명확해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봉사활동이라는 준사회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지식을 늘이고, 다양한 삶의 직접 혹은 간접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 때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경험 당사자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멀리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 해 새내기 증후군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입시와의 싸움에서 해방감이 밀려오고 자유가 보장되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효과보다 다른 주변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채로운 상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학

생 때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던 자아관이나 관계성 변인이 더 이상 진로의식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를 조금 더 지나고 본격적인 대학생활에 접어들 때면 자원봉사활동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대학생으로서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은 진로의식을 개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초기에 진로선택과 같은 교과과정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한다면 진로 설정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개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아관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고 하지만, 만약 자원봉사가 타의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아무런 틀에 구애받지 않은 채 기술하고,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질적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구모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자원봉사활동 자체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부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기의 중요성이 입증된다면, 동기부여 강화의 방향으로 일관되는 수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또한, 추후 연구의 제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해조(1987). 대학생 블런티어 활동에 관한 실제 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2009).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신줄(1994).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및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200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2006).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윤나, 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 79-99.
- 김현숙(2000). 대학 사회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학생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 문호영(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 101-120.
- 문영희(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이론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제28권 제1호, pp. 123-144.
- 박미정(199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이시연(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 114-133.
- 박태영, 김숙경, 오주(2008). 자원봉사론. 경기: 공동체.
- 양창삼(1988). 조직행위론. 서울: 대영사.
- 이복희(2009).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진, 김은정(2009).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교육인류학연구, 제12권 제2호, pp. 81-103.
- Cohn, S. (2008). Making objective facts from 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neuroscience and its entanglements with volunteers. *History of the Human*

- Sciences, Vo. 21 No. 4*, pp. 86-103.
- Coie, J. D. & Miller-Johnson,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pp.191-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 Fuller, S. (2006).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New York: Routledge.
- Gomez, R. and Gundersoon. M.(2003). Volunteer Activity and the Demands of Work and Family. *Relations Industrial, Vol. 58 No. 4*, pp. 573-619.
- Kimball, A. & Freysinger, V. (2003). Leisure, Stress, and Coping: The Sport Participation of Collegiate Student-Athletes. *Leisure Sciences, Vol. 25 No. 2*, pp. 115-141.
- Klitzing, S. W. (2003). Coping with Chronic Stress: Leisure and Women Who Are Homeless. *Leisure Sciences, Vol. 25 No. 2*, pp. 163-181.
- McLean, A. A. (1979). *Work stress*. California: Addison-Wesley.
- Metz, E., Mclellan, J., & Youniss, J. (2003). Types of Voluntary Service and Adolescents' Civic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8 No. 2*, pp. 188-203.
- O'Dea, J. A. & Abraham, S. (2000). Improving the body image,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of you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new educational approach that focuses on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28*, pp. 43-57.
- Riecken, H. W.(1952). *The volunteer work camp*. Cambridge, MA: Addison-Wesle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pp. 141-156.

- Schneider, I. & Iwasaki, Y. (2003). Reflections on Leisure, Stress, and Coping Research. *Leisure Sciences, Vol. 25 No. 2*, pp. 301-305.
- Smith, D.(1966). A psychological model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formal voluntary organizations: Application to some Chilean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2*, pp. 249-266.
-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y, Vol. 1*, pp. 2-20.

ABSTRACT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Hu, Sung-Ho* · Jung, Tae-Y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longitudinal data (2003-2008) from the Korea Youth Panel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A set of 1,395 data (males: 589, females: 806) were selected from the KYPS data pool and analyzed for comparison between groups (middle school students group, high school students group, and college students group).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elping" was ranked foremost in the list of volunteer activities for all groups concerned. Second, volunteering was seen as improving attachment, friendship, self-trust for middle school students, most variables measured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professional maturity, career maturity, self-esteem, self-stigma, attachment, life-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Third, relationships (attachment, friendship, emotional-control) and self-image(self-esteem, self-trust, self-stigma) exercised an influence on career awareness (professional maturity, career maturity) directly and via lifestyle(deviation, life-satisfac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oles played by volunteering in adolescent development.

Key Words : longitudinal study, volunteering,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self-image, career awareness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7일

* Lecturer,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tjung@cau.ac.kr